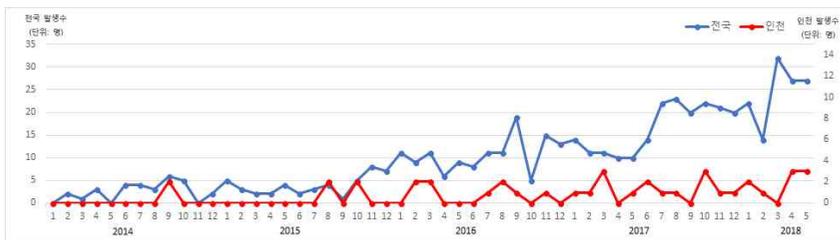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구분	내용	
병원체	레지오넬라균	 <p>0.05% basic fuchsin으로 염색한 레지오넬라균(1,000배)</p>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지오넬라균속에 의한 감염증 레지오넬라 폐렴과 독감형(폰티악열)로 구분 	
전파경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냉각탑수 등) 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	
임상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렴형(레지오넬라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성폐질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 등에서 호발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위장관 증상, 의식장애 등을 보임 독감형(폰티악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성 질환으로 권태감,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시작하여 갑자기 발열 및 오한이 동반되고 마른기침, 콧물, 인두통, 설사, 오심, 어지러움 등을 보임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렴형(레지오넬라증) : 2~10일 독감형(폰티악열) : 평균 36시간(5~65시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자 및 의사환자를 관할 보건소로 지체없이 신고 환자 : 레지오넬라증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레지오넬라증이 의심되며, 진단을 위한 추정 진단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렴형(레지오넬라증) : 항생제 치료 독감형(폰티악열) :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개발된 예방백신 없음 환경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각탑, 급수시설각탕, 급수시설, 목욕장 욕조수 등의 환경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Q&A

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레지오넬라증은 대형건물 냉각탑수, 샤워기, 호흡기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온수욕조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며, 레지오넬라균에 오염된 물로 세척한 호흡기 치료장치나 분무기 사용 시에도 감염이 가능하나, 사람 간 전파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레지오넬라증은 2000년부터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연간 30건 내외로 신고되어 왔으며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감형(폰티악열) 보다는 대부분 레지오넬라 폐렴 사례가 신고되며, 연중 발생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주로 어떤 사람에게 발생하나요?

레지오넬라증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나, 만성폐질환자, 당뇨환자,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저하환자(스테로이드 사용자, 장기 이식환자) 등 면역저하자에서 잘 발생하며,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는 독감형(폰티악열)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레지오넬라 폐렴은 퀴놀론(quinolones), 마크로라이드(macrolides) 등의 항생제로 치료하며, 폐렴 발생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지오넬라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호흡기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온수욕조 등에 레지오넬라균 증식을 억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레지오넬라균이 서식할 수 있는 냉각탑, 급수시설, 목욕장 욕조수 등의 환경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자료 : 2016년도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2017.9.7.)